



# 재정절벽(Fiscal Cliff) 현실화 시 재정적자 7,200억 달러 감소 전망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재정지출 자동삭감과 세제혜택 중단에 따른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를 의미하는 재정절벽이 2013년 현실화될 경우 미국 재정적자 감소규모는 7,200억 달러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됨.

- 워싱턴 포스트는뱅크오브아메리카의 자료를 인용해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적자는 정부 예산삭감과 세금인상 등으로 총 7,200억 달러 가량 삭감될 것이라고 보도함.
- 재정절벽은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나 그 해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음.
-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양당이 새로운 재정지출 감축안에 타협하는 경우 4,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함.

■ 한편 한국은행<sup>1)</sup>은 재정절벽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감소 및 정부지출 축소 규모가 명목 GDP의 4% 내외인 6,00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힘.

- 또한 재정절벽의 직접적인 효과는 2013년부터 나타나지만 그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미 기업의 신규투자와 개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함.

〈표 1〉 2013년 세부 항목별 가처분소득 및 정부지출 축소 규모

세부항목	축소 규모
사회보장세 감면	가계소득의 약 1,200억 달러 감소
부시감세 연장 중단	소득세 추가납부액 약 2,800억 달러 증가
정부지출(국방비 포함) 자동삭감	정부지출 약 900억 달러 감소
비상실업수당 지급종료	정부지출 약 300억 달러 감소
세액공제·감면 범위 축소	세금 약 500억 달러 증가

(Washington Post 등, 10/21)

1) 한국은행 뉴욕사무소(2012. 9), 「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」.